

‘선한 영향력’ BTS정국 “모두가 기본권리를 보장받길”

‘2023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세븐’ 협업한 美 래퍼 라토와 라이브 무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정국이 선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정국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자선 공연 ‘2023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나섰다. 한국 솔로 가수 중 처음으로 해당 축제에 헤드라이너로 낙점된 그다. 정국은 이날 솔로곡 ‘유포리아(Euphoria)’, ‘스틸 위드 유(Still With You)’ 무대로 주목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깜짝 등장한 미국 래퍼 라토(Latto)와 함께 협업곡 ‘세븐(Seven)’을 열창했다. 두 사람이 축제 무대에서 이 곡을 라이브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로 이어지는 방탄소년단 메들리로 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상당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팬덤 아미는 우뚝 등을 입고 정국을 힘껏 응원했다. 아울러 이날 무대는 정국의 신곡 발표 소식으로도 화제가 됐다. 정국의 무대가 끝난

뒤 클로징 VCR로 두 번째 솔로 디지털 싱글 ‘3D’ 스포일러 영상을 깜짝 공개한 것이다. 정국은 오는 29일 오후 1시(이하 한국시간) 두 번째 솔로 디지털 싱글 ‘3D’(feat. Jack Harlow)를 발표한다. 지난 7월 ‘세븐’으로 공식 솔로 활동을 시작한 정국은 ‘세븐’은 ‘서머송’ 대표주자가 됐다. 이 곡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 3위 등 호성적을 거뒀다. ‘3D’로 약 2개월 만에 컴백하며 ‘엔타석 홈런’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신곡엔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함께한 ‘인더스트리 베이비(INDUSTRY BABY)’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래퍼 잭 할로우(Jack Harlow)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3D’ 역시 ‘핫 100’ 1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 멤버 방찬·창빈·한으로 구성된 유닛 쓰리라차 오브 스트레이키즈(3RACHA of Stray Kids)로 이번 ‘글로벌 시티즌’에 출연했다.



원래 8인 완전체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앞서 서울에서 일부 멤버들이 뒀던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해 이렇게 변동됐다.

방찬·창빈·한은 “완전체가 아니라 아쉽지만 멤버들을 대신해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고 실제 팬덤 ‘스테이’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글로벌 시티즌’의 취지에 맞게 가난 등에 대해 다 같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편의 환상 동화”...원어스 ‘라 dolce 비타’

원어스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10집 ‘라 dolce 비타(La Dolce Vita)’를 발매한다. 전작 ‘피그말리온(PYGMALION)’ 발매 이후 약 4개월 만의 신보로, 타이틀곡 ‘바일라 콘미고(Baila Conmigo)’를 포함한 유기적인 스토리를 지닌 총 5곡의 수록곡이 담겼다. 미니 10집 ‘라 dolce 비타’에는 비록 짧은 순

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순간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사랑하는 이와 춤을 추고 싶은 인어의 달콤한 연원을 그려내며 한 편의 환상 동화를 예고한다. 원어스 멤버들은 인어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담은 퍼포먼스로 치명 섹시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춤추고 싶은 원어스의 소망을 투영해 의미를 더한다.

상금 61억...‘오징어게임’ 현실판 11월 공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현실판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Squid Game: The Challenge)를 11월22일 공개한다. 총 10개 에피소드다. 미국 게임쇼 ‘더 트레이터스(The Traitors)’ 제작사 스튜디오 램버트 등이 만든다. “한국(드라마) 시리즈를 역대 최대 규모 리얼리티로 바꿨다”며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지만, 참가자 456명이 리얼리티 TV쇼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인 456만달러(약 61억원)를 두고 경쟁한다. 참가자들은 게임을 통해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묻는다”고 설명했다. 예고 영상에서 참가자들은 드라마 속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등장한 인형 ‘영희’를 향해 돌진했다. 한 참가자는 “456만 달러? 사람들은 훨씬 적은 돈을 위해 훨씬 더 나쁜 짓을 한다”고 했다. 이 드라마는 상금 456억원이 걸린 의료의 서버이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2021년 9월23일부터 11월7일까지 46일간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1위에 올랐다. 시즌2는 내년 공



개할 예정이다. 이정재와 이병헌, 공유, 위하준이 시즌1에 이어 뭉쳤다. 임시완과 강하늘, 박성훈, 박규영, 원지안, 양동근, 이진우, 이다원, 그룹 ‘빅뱅’ 출신 딘, 조유리 등도 합류했다.

‘15주년’ 아이유 “‘대단하다’ 할 수 있는 역사를 써봅시다”

첫 팬 콘서트 ‘아이+유니버스’ 성료



데뷔 15주년을 맞은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가 팬덤 ‘유에나’와 만든 축제의 장을 성료했다. 25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2023 아이유 팬 콘서트 ‘아이+유니버스(I+UNIVERSE)’가 펼쳐졌다. ‘아이+유니버스’는 이름대로 아티스트와 팬이 ‘아이유에나’라는 유니버스 안에서 함께 해 온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한 팬 콘서트였다고 이담은 전했다. 콘서트

랑과 팬미팅이 절반씩 섞인 아이유로서는 처음 시도한 형식의 무대였다. 앞서 유에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예매 시작부터 전석 매진은 물론 이때 당시 35만 명이 라는 동시 접속자 기록을 달성해 화제가 됐다. 아이유는 이날 ‘셀러브리티(Celebrity)’ ‘비밀의 화원’ ‘베베’ ‘블루밍(blueing)’ ‘밤편지’ ‘마음’ 등 히트곡을 비롯해 팬들이 그동안 가장 보고 듣고 싶어했던 곡을 새롭게 재해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여기에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던 ‘하바나(Havana)’도 불렀다. 또한 ‘아이유의 본격 유에나 덕질’, ‘베스트

유에나 어워즈’, ‘유에나 스포일러’와 같은 코너, ‘캔디’ 커버 댄스 등도 선보였다. 아이유는 마지막 엔딩 곡을 앞두고 “정말 잊지 못할 올해 들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운을 받아 또 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새롭고 재밌는 자잘한, 우리끼리 ‘대단하다’ 할 수 있는 역사들을 써봅시다. 감사합니다. 15년 후에도 또 봐요”고 덧붙였다. 이담은 “이 외에도 아이유는 공연 당일 앞찬 굿즈가 담긴 역조공으로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깜짝 선물은 전한 것은 물론, 데뷔 후 지금까지 함께해온 ‘유에나’를 향한 아이유의 진심을 꼭꼭 눌러 담은 순간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도 공연 2일간 다른 곡을 선곡했고, 어김없이 꼭 찬 엔딩으로 끝맺음을 지었다. 1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아티스트와 팬이 쌓아온 믿음과 세월이 반짝 반짝 빛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아이유와 유에나의 순간들이 어떻게 더욱 성장할지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데뷔 15주년을 맞아 최근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디어아트 전시 ‘순간, Moment.’을 성료했다. 지난 13일에는 지난해 국내 여가수 최초 올림픽 주경기장에 입성해 약 9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현장을 담은 공연 실황 영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아워’가 개봉했다. 5만 관객을 넘어 순항 중이다. 아이유는 현재 드라마 ‘꼭꼭 속속하다’ 촬영에 한창이다. 뉴스

머스트비·스타비...韓·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K팝 공연 성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주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K팝 공연이 성료됐다. 25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주인도네시아문화원과 함께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치푸트라 예술센터 극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한국과 인니 아티스트가 함께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1140석 상당의 공연장은 만석이었다. 객석은 한국의 4인 팝페라 그룹 ‘포엣’과 K팝 그룹 ‘머스트비’에 열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포엣은 80년대부터 꾸준히 여러 가수가 리메이크하며 인니를 대표하는 대중가요로 자리잡은 ‘끄므스라안(Kemesrann)’을 오랜 기간 연습해 선보였다. 진흥원은 “오늘 한국 가수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래를 열창하자 현지 관객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함께 따라 불렀다”면서 “끄므스라안’은 한국어로 ‘진밀감’ ‘유대감’을 뜻한다. 지난 50년간의 양국여가수 교류의 역사를 앞으로의 50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현지 관객과 페르디난드 라이안 씨는 진흥원에 “수교한 지 50년인데 자카르타에서 한국 공연에 이렇게 열광적인 것은 처음 본다”고 반응했다. 마지막 순서는 인도네시아 K팝 그룹 ‘스타비’의 무대였다. 이들은 진흥원이 실시하는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Grow Together)’에 선정돼 한국에서 연습 중인 걸그룹이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 특별히 초청돼 연습 도중 귀국했다. 스타비는 지난 8일엔 서울에서 열린 아



시아송페스티벌에 인도네시아 대표로 출연해 ‘케이인니팝’의 효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K팝이 사업·문화적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외에 교류의 판을 깔아주는 사업이다. 3년째인 이 사업에 앞서 베트남, 태국이 연습 초청 대상국이었던